

‘돈 되는 오리’

HPAI로 인해 오리 산업에 어려움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HPAI 발생농장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더욱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듯이 재 입식의 그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오리농가에서 농장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리 사양관리 등을 게재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리농가사육유형별차단방역매뉴얼 I

차단방역(biosecurity)이란 동물질병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차단방역은 가축질병이 없는 건강한 동물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전염병이 걸리면 신체적인 손실과 함께 경제적인 손실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축인 경우 제대로 방역하지 않으면 전체 사육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막으려면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차단방역이다.

차단방역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농장에서 행해지는 청소와 소독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반석가금연구소의 오리 농가 사육유형별 차단방역 매뉴얼을 연재해 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차단방역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농장 출입 절차의 중요성

농장의 구역은 오염지역, 완충지역과 청결지역으로 구분된다. 청결지역은 오리를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는 방호지역으로 오리사를 의미한다. 오염지역은 오리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외부지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오염지역과 청결지역간의 완충역할을 하는 곳이 완충지역이다. 오염지역과 완충지역, 청결지역은 각각 구분되어야 하며, 출입 시 각각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염원이 청결지역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

병원체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관계자 및 방문자, 장비 및 물자들이 농장에 진입 시 필요한 절차를 거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구역인 완충구역은 제한구역이라 칭할 수 있고, 청결구역은 통제구역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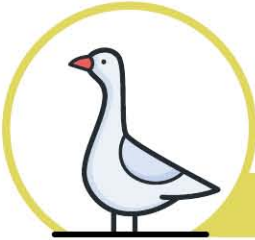
성공적인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1차로 오염지역의 병원체들이 농장에 들어오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완충지역으로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인가된 인장비는 절차를 밟아 농장에 출입하고, 담장(울타리나 방벽)을 설치하여 되지 않은 대상들은 농장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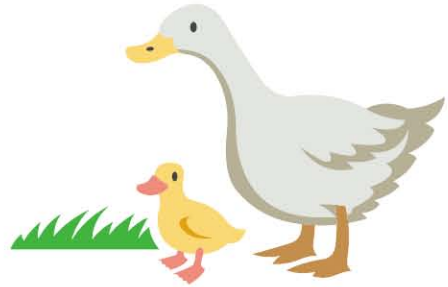
출입구 관리

- 출입구 관리의 기본 원칙은 농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입구(정문 및 후문 포함)에는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문이나 체인 등 차단장벽을 설치해야 한다.
- 농장에는 정문을 설치하여 오리의 입식 및 출하, 사료공급, 분변처리, 시설관리 등 방문이 인가된 방문자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제한된 인원만 사용하는 후문을 둘 수 있다. 외부인이나 차량 및 장비들의 출입구는 한 곳으로만 정하여 통과하도록 한다.
- 후문이 있는 경우, 후문에도 외부로부터 진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장벽을 설치해야 하며, 후문은 항상 잠겨있어야 한다. 후문의 장벽은 정문을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방역 표지판을 부착한다.
- 차단장벽의 잠금장치는 사용할 때 외에는 꼭 잠겨 있어야 하며, 특별방역대책기간과 전국일시이동제한조치(standstill) 등 차단방역 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잠겨있어야 한다. 농장의 안쪽과 바깥쪽에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방문차량들이 오리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방문차량들은 농장 외부에 주차하도록 외부에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주차하는 것이 좋다.

사육유형별 적용 방안



축종별



종오리

- 종란 수거 및 운반과정에서 사용하는 난좌의 재활용 등으로 인한 교차오염과 계열화에따른 방역의식 취약, 관련차량 및 종사자 소독 미흡 등으로 전염병 발병 위험성이 크다. 육용오리 농장은 출입하는 차량과
- 관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농장 출입관리가 보다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자, 장비 및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을 실시한다.
- 주 1회 이상 농장출입구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 및 보관한다.

육용오리

- 차량 및 트럭의 타이어, 오리 케이지 등 농장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방문자는 모두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이므로 농장 내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출입 제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축종별

- 케이지 사육이나 평사사육 모두 동일한 수준의 출입구 관리가 요구된다.



사육환경별



산악지형

- 모든 농장은 출입구를 제외한 외각을 울타리, 차단막, 체인 및 배수로 등으로 경계를 확실히 하여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산악지대는 지형이 평탄하지 않고 나무나 수풀 등의 자연경계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주변을 정리하고 그물망 등을 이용하여 보강하여 농장과 외부의 경계를 확실히 한다.

농장단지

- 여러 농장들이 모여 있는 농장단지 중 하나의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해야한다. 한 농장에 방문한 차량이나 방문자에 의해 방문하지 않은 농장에도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농장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진입로, 입구 및 바닥 등을 수시로 세척 및 소독한다.

친·인척 간 왕래

-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 중 친인척들 간에 서로 다른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들의 왕래를 통해 농장 간 질병이 전파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친인척간에는 안면이 있고, 상호간의 편이나 신뢰 등의 이유로 입·출입 절차를 생략하곤 한다. 이는 위험한 질병을 확산 시킬 수 있으므로 친인척간의 왕래나 장비공유 시에도 일반 방문자와 같은 방법과 수준의 입·출입 절차를 거치고 소독을 철저히 한다.

